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5주일

제37권 19호(가해) 2017년 4월 2일

[묵상]

사순절은 희망의 부활절을 향해 있다.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사순절의 절제와 고통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인생의 모든 역경 역시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신앙인,

이는 희망하는 존재이다.

희망 ; '어떤 일을 이루고자, 또는 그것을 얻으려고 바람'

말 자체에 이미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는 이미 신앙인이 아닌 것이다.

부활이라는 희망이 주어져 있다한들

그 희망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생활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고 나오너라",

"메드로야, 이기심을 버리고 나오너라.",

"메드로야, 썩어 냄새나는 부패와 악습에서 나오너라"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된 새로운 세계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맺음말 - 한국 현대 교회사의 과제

한국 교회는 민족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고 이바지해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2세기 이상에 걸친 역사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19세기 이후 한때 서구 문화의 전파자로 자임하며 민중에 대한 구원을 '독점'하면서 그들을 계몽하려 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스승'으로 자처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 천년기의 한국 교회가 계속 이와 같은 과거의 역할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격리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겸허하고 진지한 '학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회는 '어머니요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할 겸허하고 진지한 이러한 자세는 한국인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한국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 천년기의 한국 교회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교 세례자를 증가시키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국인의 심성과 한국 사회와 그 문화를 복음적 가치와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교회 학문의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신 세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교회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 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화 선교의 의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민족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민족 문화와 진정으로 화해하여 그리스도교 문화가 민족 문화의 일부로 뿌리내리는 데에 더 큰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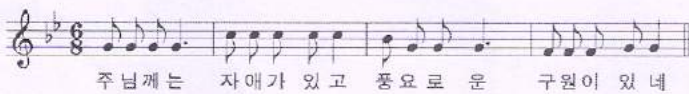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346	346	150
봉헌	261	261	257
성체	291	291	281
파견	158	158	153

토요 저녁 미사	(연) 정완현 안드레아, 이용식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에 분다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유보나 보나
주일 학생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생)
주일 낮 미사	(연) 송기분 수산나, 박정미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김완태 다미아노, 오원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 정재우 요왕, 한삼만 요셉, 오경근 요한 금구, 김진성 루수 & 김수정 발바라, 김종환 야고보, 노정순 베로니카
	(생) 손석 스테파노, 글로리아 성가단원들, 매괴의 여왕Pr. 단원들, 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 마르코 & 영라이 & 미아 & 니나, 정애나 세라피나 & 린다 켈마 & 엘리스클라라, 엄정자 분다, 엄유진 토마스 아퀴나스 & 주현 올리안나가정, 김복순 벨라멧다, 최승원 아나스타시아, 김지훈 대전안드레아,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 37,12-14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8-11

복음 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음 요한(John)11,1-45<또는 11,3-7.17.20-27.33-4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례력에서 사순 주일의 말씀의 전례 흐름을 살펴보면, 첫 주일에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새롭게 회개하라는 내용을 들었고, 두 번째 주일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실 '새로운 존재'로 변모해 가라는 촉구의 내용을 들었으며, 이어서 우리의 회개와 변화의 여정을 동반해 주시고 당신 자신이 우리 여정의 목적지이기도 한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물'이시고 (사순 제3주일), '빛' 이심을(사순 제4주일) 들었습니다.

오늘 사순 제5주일에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표징, 곧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앞서 독서의 내용들은 부활과 생명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라는 예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고, 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들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대목에서 '부활 신앙'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대신, 굳이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라고 표현하십니다.(로마 8,11)

또 같은 절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라고 비슷한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까닭도 바로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자 함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배경으로 독서를 들은 뒤 듣게 되는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표징인 동시에,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라자로를 살리신 것이 역설적으로 최고 의회가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된 배경이 되고, 더 역설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새 생명을 위한 부활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깊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미래 우리의 부활의 예표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손발이 감기어 묶여 있는' 우리의 내적모습을 향해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묵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말씀이기도 함을 묵상케 합니다. 깊어가는 이 사순절, 우리를 내적으로 움아매고 있는 것들,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와야 할 '죽음'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참 생명, 참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감도 을도

출판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전 당당한 '갑'입니다. 그러나 '을'인 출판사의 눈치를 한없이 보게 됩니다. 세상엔 횡포를 절대로 부릴 수 없는 '갑'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지리를 몰라서, 문화를 몰라서, 언어를 몰라서 철저히 '을'의 신세가 되지만 신나고 설레고 자유롭습니다. 세상엔 이토록 유쾌, 상쾌, 통쾌한 '을'도 있습니다.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한경숙 안나	이영석크리스토퍼 전하현 마리아
수단복음	이만석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순자 비비안나	이민상 요한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2일)은 성전헌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 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4/7 (금)- 본당 꾸리아
 4/14(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4월 4일(화요일)
 ● 참회예절 : 7시(저녁미사 없음)
 ● 고백성사 : 7시 30분 시작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희생 애공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
 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3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영화상영(벤치)있습니다.
- ◆ 2017 예비자 교리반 모집 합니다.
 - 교리기간 : 5.25~12.7 (목) 저녁 8:10~9:10
 - 환영식 : 5. 21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세례식 예정 : 12월10일
 - 연락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 4월요셉회 모임
 - 일시: 4월 9일 (둘째 주일) 12:45pm
 - 장소: 토요스시
1441 W. Knox St.#300, Torrance, CA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엠마오스 여행 초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본당 엠마오스 여행에 초대합니다.
 - 일시: 4월 17일(월요일) 8시 성당출발, 저녁 6시 성당 도착
 - 여행지: 팜스프링 Aerial Tram 케이블카
 - 회비: \$30,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주일은 (4월9일) 봄 방학으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 2일:김밥(\$4) 사발면 (\$ 2, 토복 봉사담당)
 *주일학교: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8,10학년)
- 4월 9일: 홍합미역국 (\$ 3, 토서2반)
 *주일학교: 수업 없음(Spring Break)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13일(성 목요일)/14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동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P.V.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하비/카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구자운 김관기 김병학 김성현 김영덕 김옥찬 김인성 김종훈 김주량 김형순 박완철 박인건 박종열 박준범 박현희 서용숙 송영미 송재훈 송호창 오상준 오세원 윤현정 이병우 이상곤 이종선 이주창 임 순 임한나 최원석 최재은 최지영 최태훈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황철수 최트로이 합계:\$ 4,705	강숙경 강인모 구자운 김관기 김병학 김영덕 김주량 박완철 박인건 박현희 서용숙 송영미 송호창 오세원 이병우 이상곤 이주창 임 순 최원석 최재은 최지영 최태훈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합계 : \$2,185
주일미사헌금 : \$ 2,531	안나회 동전 모으기: \$596

◆ LA 대교구 성유 축성미사(Chrism Mass)

- 일시 : 4월10일(월) 오후 7시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555 Temple St.(+Grand Av.) LA 90012

◆ 2017년도 TOPIK 한국어 능력시험

- 일시: 4월 15일
- 장소: LA 한국교육원

◆ 2016~17년도 단어경시대회

- 일시: 4월 16일
- 장소: 백삼위 한국학교

◆ 2017 성령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 (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신자
- 준비물: 성경,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컵,미사 지향 및 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채신 봉사회(K.C.R.M)714-343-4771

남가주 소식

◆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침표'

- 주제: '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 9)"
- 일시 :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 \$130
- 신청 :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 2366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진재 메히틸다 713-4926	김정희 율리아 04/0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04/22(토)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정 카타리나 04/21(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교복 레오 04/22(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최상단 사비노 04/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04/15(토)오후12시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04/21(금)오후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데레사 04/17(월)오전11시
	3	이희정 크리스티나 818-6903	이남현 막시모 04/0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정희 마리아 04/10(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애종 다니엘 (818)640- 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04/08(토) 오후6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4/7(금) 십자가의 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동진 스테파노 04/14(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04/08 (토) 봄 야유회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운모 아가다 04/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이게 궁금했어요]

가톨릭교회가 술이나 담배를 허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성경은 향락주의를 경고하지만 이는 결코 인간의 먹거리를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로마 14,3 참조). 오히려 “먹거나 마시는 일로” 아무도 심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골로 2,16).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온전히 자유롭기를 권하는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 외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골로 2, 21)하는 일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감사하게 먹는 행위라면 술을 마시는지 금연하는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물으시지요. 혹 전교를 할 때, 가톨릭교회는 “술 마셔도 괜찮고, 제사도 지내고, 담배는 자유예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칫, 가톨릭교회는 무엇이든 허용하고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는 종교로 오인을 받게 할 우려가 있으니 삼가기 바랍니다. 마치 유교적 제사를 계승한 종교쯤으로 여기게 하고 기도가 염불인양 헌금이 복채처럼 인식되는 일이 있다면, 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께 민망하고 ‘죄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음식은 부차적인 삶의 취향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금연하고 절주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 가톨릭 부산 주교 1947호 2008.07.20 소곤소곤

죽음 후의 삶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더해가고 그러다 더 이상 나이를 더할 수 없는 시간에 다다르면 죽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언젠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펐고, 죽음 뒤에 올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기엔 천국도 막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현 세상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괜히 눈물이 흐르고, 석양이 발갈게 물드는 해질녘 즈음엔 유난히 더 슬퍼지곤 했던 어릴 적 기억입니다.

재작년 5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발견된 병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깨끗이 완쾌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생각도 못 했던 수술 후 유증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검사실로 들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응급! 수혈!’을 외치는 의료진들 틈에서 손에 쥐고 있던 목주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믿기지 않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잡고 우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하염없이 울던 중 누워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격한 응급상황을 겪으신 것과는 대조되는, 지금껏 보아온 아버지의 얼굴 모습 중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달래려 애쓰며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했고, 어느덧 새벽이 되어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러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다녀오는 익숙한 길은 항상 아버지를 뒷좌석에 모시고 병원을 오가던 그 길이었지요. 늘 함께 다니던 사거리 신호 앞. ‘천천히, 조심히 몰거라’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던 바로 그때, 차 안의 라디오에서 새벽을 알리는 평화방송 성가가 우렁차게 퍼져 나왔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기도 드리세.”

순간, 뒷좌석의 아버지의 체온이 온전히 느껴져 ‘아빠!’를 외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축복스런 노래 속에서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 곁으로 가신다는 확신과 함께 주님 곁에서 죽음이 아닌 영생을 누리시며 저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느꼈습니다. 일상의 기적들로 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참 행복의 나라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안에서 인생의 십자가 무게조차 감사히 여기며 예수님의 생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천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손여은 카타리나 / 배우

- 7 -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젤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규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푸르덴셜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